빛고을 광주 도심포교 30년 결실

청빈암,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자비나눔도



광주 청빈암(주지 정현)이 창건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사찰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청빈암은 12월 14일 회주 월용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정현 스님을 비롯해 운문사 강원 도반스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정목 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사진>

청빈암은 지난 1989년 월용 스님이 창건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왔다. 2001년 일반 주택지역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한 청빈암은 2014년 제3대 주지 정현 스님의 취임으로 지역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 지원과 선방 대중공양, 운문승가대학 후원, 지산동 연화유치원 후원 등으로 외연을 넓혔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자비신행회, 연화유치원과의 후원협약식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에 쌀 500kg과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현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 만난 것, 스님이 된 것, 좋은 부모를 선택한 귀한 인연들을 잊고 살았다.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빈암은 향후 불교유치원 지원을 통한 교육포교,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단체 지원, 매년 석·박사 스님들에게 장학금 지급, 신도들의 개인별 상담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백나한 100일 수행 공덕

청도 운문사, 오백나한 100일기도 회향법회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는 12월 15일 경내 오백전에서 '제41회 오백나한 1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오백나한 100일 기도는 운문사가 1978년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이라는 슬로건을 세워 41년째 이어온 법석이다. 당시에는 학인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프로그램이 됐다.

운문사 회주 명상 스님, 율주 일진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해 박순곤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법회는 천수경 독송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서 명성 스님은 운문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세불과 협시보살 등을 설명한 뒤 "지금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며 "실제회향, 보살회향, 중생회향의 회향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아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박순곤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운문사 신도님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 기도 드리는 일이 참으로 기쁘고 고맙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지팥죽으로 새해 희망 전달

울산 벽선암, 팥죽 1000인분 시민과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은 12월 14일 울산 홈플러스 북구점 정문 앞에서 '제7회 문화와 함께하는 야단법석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나눔행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동지팥죽 1000인분을 참여한 모든 시민과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벽선암은 지역 경로당 30곳에 팥죽 20인분을 점심공양으로 각각 전달하고 건강을 발원했다. 팥죽 나눔에 이어 벽선암은 신명나는 노래와 춤으로 시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벽선암 주지 혜진 스님은 "매년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한 그릇의 팥죽으로 건강과 행복한 마음으로 올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가 수행' 부산포교사단 다짐

2019년 전진대회 및 25교구 성지순례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2월 1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25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 및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2019년 전진대회를 개최하며 새롭게 다가올 2020년에도 포교를 수행삼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2년간 이어온 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도 진행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 이하 부산포교사단)은 12월 1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25교구본사 성지순례 회향식 및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2018년 3월 직할교구 조계사를 시작으로 매월 교구본사 성지순례와 기도를 진행해왔다. 성지순례를 통해 화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산지역단 회관 건립을 목표로 세워 회비를 모으고 통깨 등 생활용품을 팔아 수익금을 모았다. 기도 원력으로 하나 된 부산지역단은 지난 7월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성지순례 회향식에서 부산포교사단은 다시 한 번 회관 이전을 축하하며 저력을 보여준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을 격려했다. 부산포교사단은 그동안 진행한 성지순례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붓다로 살자' 발원문을 낭독하고 포교사의 삶을 다짐했다. 이어 공로상 및 개근상 등을 개인과 팀별로 시상하며 축하했다. 이날 순례기간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참여해 응원 독려해준 53명의 포교사에게 교구본사 직인이 담긴 액자를 상품으로 전달했으며, 특히 새벽마다 순례단을 위해 아침공양을 손수 준비한 엄재순 포교사에게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다.

2018년 3월 시작한 성지순례
25개 교구 돌며 포교원력 다져
부산포교사 포교활동 격려하며
"기도 원력으로 불교 중흥 발원"

이어진 전진대회는 △개회선언 △단기입장 △삼귀의 및 반야심경 △인사말 △격려사 △치사 △상장수여식 △11대 부산지역단 임원진 소개 △축가 △회관 건립 공로상 시상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포교원 사무국장 현주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 부단장,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전진대회에서는 포교원장상 및 총재상 등을 시상하며 포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포교원장상은 하갑봉 포교사가 수상했으며 총재상은 윤옥란 포교사, 디지털대학장상은 강현중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또 포교사단장상은 강동숙 · 조선현 · 김진홍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상은 장호원 · 이종배 · 신병용 · 정옥순 · 유정해 · 이지수 포교사가 받았다.

정분남 단장은 "부산지역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발전의 토대를 이뤄 무엇보다 기쁜 한 해였다"며 "11대 집행부와 함께 수행하며 포교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성장을 목표로 다시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 11대 단장은 정분남 단장이 연임했다. 정분남 단장은 금강경 독송으로 매일 수행을 강조하고 나눔 활동 및 성지순례를 이어갈 방침이다.

맑고향기롭게 "봉사는 세상 맑히는 힘"

제7회 부산자원봉사 시상식
최복순 봉사자 대상 선정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12월 16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7회 부산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수상자 최복순 자원봉사자(앞줄 오른쪽 두 번째).

"쌀도둑으로 오해 받아도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봉사가 세상을 맑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아도 삶의 이유이기에 봉사를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보살핀 대상자에게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봉사하며 보시바라밀을 실천한 봉사자들의 수상 소감이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12월 16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7회 부산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자원봉사자 대상은 봉사정신이 세상을 맑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를 찾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봉사대상 수상자는 최복순(70) 봉사자이며 상금 10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됐다.

최복순 자원봉사자는 2000년 8월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 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재해구호활동으로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김해 한림면 이재민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부산 연지동 침수피해 주민구호, 태안 기름유출 재해구호 활동을 담당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봉사활동을 위해 노인수용시설 신망애양로원 방문봉사를 실시하고 조손가정 결연 봉사활동, 선양 복지관 급식 봉사활동 등을 펼쳐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최 씨는 △장애인 복지 봉사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헌혈의 집 봉사활동 △희망풍차결연 △사랑의 빵 · 국수나눔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 위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추진 등 봉사의 삶을 이어갔다.

최우수상은 강정림(59) 봉사자가 수상했으며 상금 500만원과 표창패, 우수상은 조재숙(57) 봉사자와 정춘자(77) 봉사자가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각 2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됐다.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은 "나눔이란 다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가치"라며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몇 배로 커질 것이다.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그간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자원봉사자 대상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과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이 특별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